



영광 고용 복지센터 개소식(왼쪽)과 영광군 청년 싱크탱크 운영프로그램.

구직자 기업체 현장 방문.

힘내자 청년들

힘심는 영광군



영광군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광형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이 빛을 발하고 있다.

18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이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청년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장려금' 지원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한 영광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일자리·청년 정책을 추진해 전국 지자체 중 모범으로 우뚝섰다.

군은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을 조성해 제1회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등 청년과 소통을 강화해왔다.

이를 위해 청년 취업활동수당,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청년 드림 UP 321 프로젝트 등 청년의 경제활동과 창업을 지원하는 '영광맞춤형 청년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 역시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처음으로 '청년 일자리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위기에 대응해 지역 거주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

2019년 전국 첫 인구일자리정책실 신설... '영광형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성과

3년간 1800만원 지원... 전국 기초 지자체 첫 청년일자리장려금

희망 디딤돌통장·취업활동 수당 등 경제자립 기반 마련 지원도

는 사업이다.

영광군을 이끌어 갈 청년들의 타지역 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2020년 청년 고용률이 전년대비 3.8%p 하락하는 상황에서 청년실업 등 청년의 문제는 이미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영광군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점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이 사업은 영광 거주 청년들이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 때 지자체가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재정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재정 지원은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장기 근속을 유도함으로써 고향을 떠나지 않고 영광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원대상과 요건은 영광군에 소재한 상시 근로자 3인 이상의 중소기업과 채용일 기준 1년 이상 영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45세 이하의 청년이다.

기업이 해당 조건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영광군이 3년 간 청년에게 1800만원, 기업에게 360만원을 지원한다.

1년차인 올해는 청년에게 매월 40만원을 1년간 적립 후 지급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에는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 근속 장려금은 2년차(2022년)에는 매월 50만원을 지원하며, 3년차(2023년)에는 매월 60만원을 지급한다.

기업의 경우는 2-3년차에도 기존대로 매월 10만원씩 지원한다.

지난 10일 현재 참여기업 선정(1차)이 마무리됐으며 16개 사업체에서 40명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다. 참여기업 추가(2차) 모집도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영광군은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청년 창업 기회 제공 등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해 청년들이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고 있다. 청년 동아리, 청년학교, 청년정책 이슈 발굴을 위한 제3기 청년 싱크탱크 및 청년정책 연구사업 등 청년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청년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청년 취업활동수당, 청년 취업자 주거비도 지원한다.

군은 청년들의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청년드림 UP 321 프로젝트, 청년 창작 전문가 양성사업, 청년 플리마켓 등을 지원해 청년 일자리 창출 여건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청년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 청년 취업, 창업 기회 제공 및 전문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군은 청년센터 리모델링과 청년 공방 거리 조성사업으로 '상·하반기 전남인구,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에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김준성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일자리 불안정성이 심화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청년이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영광=이준용 기자 jylee@kwangju.co.kr

영광군이 코로나19 시기에 창업한 청년창업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영광군은 청년 창업자에게 리모델링 비용과 임차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를 오는 21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당초 예비 청년창업자만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자를

초기 청년창업자도 임차비 최대 1500만원 지원

군, 21일까지 추가 모집

돕기 위해 1년 미만 초기 청년창업자까지 포함해 참가자를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추가모집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만 18~45세 예비 청년창업자와 1년 미만 초기 청년창업자이다.

대상은 프랜차이즈, 금융·부동산업, 숙박업, 기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

이다.

영광군은 더 많은 청년들에게 창업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분야를 리모델링(1000만원), 임차비(500만원) 등으로 세분화 했다.

지원 신청은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061-350-5196)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M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